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6. 2.(일) 11:00 < 6.3.(월) 조간 > 배포 2024. 5. 31.(금)

소부장 투자연계형 사업, 민간투자 유치 최대실적 기록

- 143개 민간투자기관이 216개 소부장 기업에 7,848억 원 투자
- 반도체, 미래 모빌리티, 첨단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 집중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올해 216개 소부장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투자연계형 사업을 통해 총 7,848억 원을 투자유치 받았다고 밝혔다. 이는 작년 3,985억 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금액*이다.

* 투자연계형 사업 투자유치 현황(억원) : ('22년) 1,498억 → ('23년) 3,985억 → ('24년) 7,848억

투자연계형 사업은 민간 투자기관의 선행 투자에 대해 정부가 연구개발(R&D)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설명회, 벤처캐피털 매칭 행사 등을 개최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한 IR컨설팅도 지원된다.

특히, 올해부터 민간 투자금 100억 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(R&D)을 대폭 증액(최대 25억 원→최대 50억 원)하는 별도 트랙을 신설하였다. 그 결과 24개 기업이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기록하였고 그 규모도 3,650억 원에 달했다. 별도 트랙 신설 전인 23년도에 비해 기업 수는 8배(3→24개 사), 투자유치금액은 11배(330→3,650억 원) 증가하여 신규 트랙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.

기술 분야별로 보면, 기계·소재(60개) 1,765억 원, 전기·전자(63개) 2,972억 원, 바이오·의료(43개) 1,616억 원의 투자가 두드러졌다. 100억 원 이상 투자로만 한정할 경우 투자금 3,650억 원 중 81%가 반도체, 미래 모빌리티, 첨단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몰렸다. 실례로 GPU를 대체할 신경망처리장치(NPU) 기술을 보유한 리벨리온 사(社)는 동 사업을 통해 175억을 유치하여 인공지능(AI)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할 집적회로(IC)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.

소부장 투자연계형 사업은 00~23년간 총 942개사에 1조 4,567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고, 정부의 매칭 연구개발(R&D) 투자(1조 6,478억 원)를 합하면 그간 총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왔다.

담당 부서	산업공급망정책관 소재부품장비개발과	책임자	과 장	김영윤 (044-203-4920)
		담당자	사무관	박한기 (044-203-492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투자연계형 (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) 사업 개요**

□ 사업 개요

○ (목적) 소부장 산업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, 시장수요에 대한 **성과 확산**을 위하여 **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**에 **R&D 사업화 촉진**

○ (전문기관) KEIT(R&D), KITIA(투자)

○ 투자유치현황

< 투자연계형 (소재부품기술개발, 자유공모형) 투자유치 현황 >

내용	'21	'22	'23	'24
투자유치 기업수(개, A)	83	81	161	216
민간투자금(억원, B)	1,473	1,498	3,985	7,848
평균 민간투자금 (B/A)	17.7	18.5	24.8	36.3

□ 주요 지원 방안

○ (투자유치 설명회) 투자유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, IR 자료를 보유한 기업이 실제 투자기관 앞에서 IR 발표

○ (벤처캐피탈 매칭행사)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기업 현황(핵심기술, 투자단계 등)에 부합하는 투자기관과 1:1 매칭 및 협상 지원

○ (IR 컨설팅)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역량 강화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전략 수립, IR자료 작성 등 컨설팅 지원

□ 주요 성과

○ (기업 성장사다리 역할) 기술력은 있으나,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민간투자 연계로 대규모 유동성 공급

- '00~'23년 총 942개社에 대해 정부 R&D 투자 1조 6,478억 원 및 민간투자금 1조 4,567억 원으로 총 3조 1,045억 원 투자

○ (IPO 성공) 790개 비상장 선정기업 중 115개사(15%)가 IPO 성공('00~'23년), 일반기업 대비 높은 상장비율 및 짧은 상장기간 소요

* IPO 성공률은 일반기업 3.6%의 4배이며, 소요기간은 일반기업 대비 2.2년 단축(14년 소요)